

華潭法師의 肖像

孟 仁 在

華潭敬和는 李朝正祖—純祖年間의 高僧이었음에 朝鮮佛敎通史(李能和)朝鮮人名辭典、李朝佛敎(高橋亨)等에 紹介되어 있다.

俗姓朴氏、密陽人、正祖十月丙午(一七八六)四月十八日生이며、十八歲에 出家、楊州華陽寺에서 月華長老에게 祝髮、弄月·栗峯 二師로부터 具足戒를 받았고 華嶽知灌을 師父로 하였다. 全國의 名山 名勝을 遍歷하여 寶蓋山의 石臺菴、金剛山의 摩訶衍(菴)、海印寺、普聞寺(木川 또는 恩津、여기 法會때에는 大內에서 香燭 楞嚴經을 賜送)、奉恩寺、梵魚寺、雪岳山懸燈寺等에 足跡을 끼쳤고 그 사이(純祖十五年乙亥以後)華嚴會를 主席하기 八十三回였다고 한다. 또 長坐不臥 二十九年 華嚴經의 終講五十五回에 이르렀고 憲宗十四年戊申(一八四八)懸燈寺에서 六十三歲로 入寂하였다고 한다.



그의 師父인 華嶽은 淸州韓氏、英祖二十六年 庚午(一七五〇)生이며、

憲宗五年 己亥?(一八三九)金剛山 長安寺地藏菴에서 入寂하였다고 한다. 三峯이라고도 號하여 文集三峯을 傳하고 있으며 儒林中에도 親交者를 가졌었다고 한다. 이 師父華嶽等과의 系譜는 華潭과 거의 同代의 判府事(後에 領相)李

裕元(一八一四—一八八八)이 撰한 華潭大師碑銘에도 보인다.

「華潭大師判府事李裕元撰、東方佛法始盛於太古和尙、累傳之西山、楓潭、鞭羊、月潭、喚醒、涵月、玩月、漢巖、至于華嶽、遂大以蕃、升堂者衆、而得其衣鉢之一日華潭法師……」(朝鮮佛敎通史)

華潭도 儒林과의 親交를 가졌을 것임은 이 肖像畵의 「影讚」이나 前記한 바와 같이 影讚의 撰者인 橘山李裕元이 역시 그의 碑文까지 撰하였음으로도 짐작된다. 「……師鍊業既久、讀經之暇、演偈頌六十七品、行于世涉獵儒家書、奉父母祖牌、朝夕供養、此師之性也……」(同碑銘)

아울러 그가 生前에 畫員에게 影幀을 그리게 하였다면 그것도 世俗的 儒風의 一端을 보인 것이라 할까.

經床 앞에 柱杖을 짚고 正座한 彩色肖像은 一一〇×七七·五cm의 莘本에 가득차 있으며 經床 위에는 華嚴經(四十二)、梵網經(單)等 經冊과 兜眼鏡이 놓여 있다. 晝夜로 빛은일이 없다(……晝宵不離袈裟……同碑銘)고 傳하는 壞色(黑靑紅混色—紫色) 袈裟와 黑色長衫은 그가 律師였을 外面上 나 타낸 듯하며 이른바 五色(여기서는 紅黃綠三色)의 紐는 袈裟귀의 「天」(天王)字、柱杖의 金裝과 함께 오늘날과는 틀리는 華嚴을 나타내고 있다(現今의 袈裟—比丘는 褐色、帶妻는 紅色長衫은 灰色 現在도 袈裟귀의 補強處는 있으나 文字는 없음). 長衫의 流動的이며 強한 褶文은 온 몸을 뒤덮다싶이 한 黑色을 더욱 무겁게 하여 內面의 戒律을 象徴한 듯하다. 顔面과 兩手에는 草畫위에 彩色을 하고 다시 肉色으로 물결기한 過程이 明白하며 全體의 餘裕있는 傳統的 肖像畵法이 驅使되어 있다. 華潭은 律師이기 때문에 그림을 辭讓한 듯 한데 李裕元이 强裁했던 듯함이 影讚에 云謂되어 있다.

「影讚」

影非師之本意我則有意讚非師之有意我已在意炤水之意水月之意出自西天如來之意判府事橘山李裕元 撰

華嚴宗主東國律師華潭堂大禪師之眞 諱敬和」

華潭의 沒年인 憲宗十四年(一八四八)에 李裕元은 三十五歲가 되며 따라서 그가 이 무렵에 判府事의 官職에 있었어야 이 肖像畵는 華潭在世

